

# 판단, 맹세하지 마라!

## 제자가 되는 순서

### 마태 7:1

이에쭈쓰께서는 준엄한 가르침을 남기셨다.

$M\eta\ \kappa\rho\acute{\iota}\nu\epsilon\tau\epsilon$ (ImPr2),  $\acute{\iota}\nu\alpha\ \mu\eta\ \kappa\rho\iota\theta\acute{\eta}\tau\epsilon$ (SuAoP2). 메이 크리네테 히나 메이 크리페이테

너/희/남\들이 판단 받게 되지 않도록, 너/희/남\들은 판단하지 마라. (마태7:1)

이에쭈쓰께서 준엄하게 가르치실 때에, 명령형 현재형을 사용했습니다. 동작이 진행이 되고 있단 뜻이지요. 즉, 판단하는 일을 행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또한 결과절에서는  $\mu\eta\kappa\rho\iota\theta\acute{\eta}\tau\epsilon\ \kappa\rho\iota\theta\acute{\eta}\tau\epsilon$ (SuAoP2) 메이 크리네테, 가정법 부정과거가 사용되었다. 가정법 부정과거는 주로 금지를 표현하는 문장에서 사용되는데 자주 명령에 가까운 글기를 포함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마태7:1)은 금지를 표현하는 문장이고 그래서 가정법 부정과거가 온  $\kappa\rho\iota\theta\acute{\eta}\tau\epsilon$  크리페이테가 사용되었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판단하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서로 다투고, 서로 싸울 때에 누가 먼저 중단해야 하는가?하는 문제가 날카로운 쟁점이 될 수 있다.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이에쭈쓰께서 가르치셨습니다.

내가 먼저 중단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중지하는 것입니다.

$M\eta\ \kappa\rho\acute{\iota}\nu\epsilon\tau\epsilon$ (ImPr2) 메이 크리네테, 너희들은 판단하지 마라. **명령형 현재형을 사용했**

습니다. 지금 너희들이, 제자들이 판단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필경은 유대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이나 바리세인들이나 제사장들에 대해서, 레바이에 대해서 심심찮게 판단하고 있었던 것은 기정사실화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에쭈쓰께서는 너희들이 판단하고 있는 것을 지금 중단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목적이 뭐냐, 결과가 뭐냐? 너희들이 판단되어지지 않도록!

## 맹세하지 마라!

이에쭈쓰의 어투에는 간접적인 규탄까지 포함되어 있어 보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을 반드시 중단해야 한다, 그러면 그 후에는 우리가 판단 받게 되지 않을 것이다’는 말씀 속에는 어느 정도의 규탄이나 질책도 들어 있어 보입니다.

반면에 이에쭈쓰께서 마태 5:34-36에서 맹세를 금지할 때에 사용한 동사시제는 부정과 거이다.

<sup>34</sup> ἐγὼ δὲ λέγω ὑμῖν 그러나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다. μὴ ὀμόσαι(InAoA) ὅλως 일절 맹세하지 마라!· μήτε ἐν τῷ οὐρανῷ 그 하늘 속에서도 하지마라, ὅτι θρόνος ἐστὶν τοῦ θεοῦ, 그것은 신의 왕좌인,

<sup>35</sup> μήτε ἐν τῇ γῆ 그 땅 안에서도 하지마라, ὅτι ὑποπόδιόν ἐστιν τῶν ποδῶν αὐτοῦ, μήτε εἰς Ἱεροσόλυμα, ὅτι πόλις ἐστὶν τοῦ μεγάλου βασιλέως,

<sup>36</sup> μήτε ἐν τῇ κεφαλῇ σου ὀμόσης(SuAoA2), ὅτι οὐ δύνασαι μίαν τρίχα λευκὴν ποιῆσαι ἢ μέλαιναν.

34, 그러나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다. 일절 맹세하지(InAoA) 마라! 그것은 신의 왕좌인 그 하늘 속에서도 하지마라,

35, 그것은 그의 발들의 발판인 그 땅 안에서도 하지마라, 그 유대한 왕국의 도시인  
이예로솔루마 안에서도 하지마라,

36, 너남은 한 개의 머리털도 희거나 또는 검게 만들 수 없기 때문에, 그 머리  
안에서도 맹세하지(SuAoA2)마라!

위의 구절들은 부정과거 동사를 사용하면서 맹세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이다.

하늘안에서도, 땅안에서도, 이예루살렘 안에서도, 머리 속에서도 또는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맹세하지 말하고 금지시키는 위 문장들에는 규탄이나 질책같은 글기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 이유는, 이러한 이예쭈쓰의 가르치심을 들던 청중들이 이미 맹세하는 습관 또는  
관습을 포기했기 때문인 것 같다. 아마도 이 청중들은 세레 요한을 따르다가  
이예쭈쓰에게로 충성의 대상을 옮긴 사람들로 추측할 수 있다. Josephus에 의하면  
세레요한은 그 당시에 결코 맹세하지 않았던 Esenes 파에 속했던 사람들과 많은  
점에서 닮았다고 증언한다.

따라서 이예쭈쓰께서 마태 5:34-36에서 부정과거를 사용하면서 맹세를 금지한 바는,  
지금은 맹세하지 않고 있지만, 맹세하는 것을 앞으로도 다시 되살리지 말라, 다시  
시작하지 말라는 가르침으로 보인다.

반면에 부정과거를 사용하시면서 금지를 지시하시는 그리스도의 태도와 그의 혈육이  
되는 James가 James 5:12에서 **현재형을 사용하면서 금지를 가르치는 바와는 그 어투에  
있어서 아주 대조적이다.**

Πρὸ πάντων δέ 그러나 모든 것 이전에, ἀδελφοί μου 나의 형제들이여!, μὴ ὀμνύετε (ImPrA2) 당신들은 맹세하지 마라! μὴτε τὸν οὐρανὸν 그 하늘을 (가지고도) 하지마라! μὴτε τὴν γῆν 그 땅을 (가지고도) 하지마라! μὴτε ἄλλον τινὰ ὄρκον 다른 어떤 맹세(ὄ)를 (가지고도) 하지마라! ἦτω δὲ ὑμῶν τὸ ναὶ ναὶ καὶ τὸ οὐ οὐ 그리고 너희들의 찬성은 찬성이 거부는 거부가 되게하라!, ἵνα μὴ ὑπὸ κρίσιν πέσητε(SuAoA2) 너희들이 판단 아래 떨어지지 않도록!.

그러나 모든 것 이전에, 나의 형제들이여! 당신들은 맹세하지 마라! 그 하늘을 (가지고도) 하지마라! 그 땅을 (가지고도) 하지마라! 다른 어떤 맹세를 (가지고도) 하지마라! 그리고, 너희들이 판단 아래로 떨어지지 않도록, 너희들의 찬성은 찬성이 거부는 거부가 되게 하라!

이에쭈쓰께서 부정과거를 사용하면서 규탄이나 질책이 없이 가르치셨던 맹세 금지 지침을 이에쭈쓰의 혈육인 James가 현재형을 사용하면서 맹세하지 말라고 가르친 이유는, 이에쭈쓰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았던 청중들에게는 맹세의 습관이 없었다고 보았는데, 이에쭈쓰 이후로 교회들의 수효가 늘어나고 복음이 전파되면서, 즉, 새로운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로 합류하게 되면서, 맹세하는 습관을 다시 시작하는 움직임들이 있었기 때문에, James는 현재 진행 되고 있는 맹세하는 버릇을 모든 기독교인들이 단번에 중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현재형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더 나아가서, 마태 6:17에 보면, 이에쭈쓰께서는 금식을 금하도록 가르치실 때에 현재형을 사용했다.

σὺ δὲ νηστεύων(PaPrANm) ἄλειψαί(ImAoM) σου τὴν κεφαλὴν καὶ τὸ πρόσωπόν σου νίψαι(ImAoM),

그러나 너는 금식할 때에(νη) 너의 머리를 기름으로-문질러라(ἄ), 그리고

너의 얼굴을( $\pi$ ) 씻어라!

현재형을 사용하셨다. 이는 제자들이 금식을 하면서, 풍습에 따라서 얼굴이 우울해 보이거나 축 쳐진 얼굴을 내 보인 것이다. 이에 대해서 이에쭈쓰께서는 금식을 금지하면서, 풍습에 따라서 얼굴이 우울해 보이거나 축 쳐진 얼굴처럼 보이지 말고, 머리에는 기름으로 문지르고 얼굴은 씻고 다녀라 지시했다.

Esenes 파에 속했던 초대 교인들도 맹세는 철저하게 금했으면서도 금욕주의 생활은 허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세레 요한의 제자들은 금식에 대해서는 철저했었지만, 이제는 금식을 금했다.

이에쭈쓰의 설교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제자가 되는 것에 대해서 어떤 동사가 사용되었는지 분석해 보자.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바를 언급할 때에는 부정과거가 사용되었다. 따라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진다는 결정은 이러한 결정들을 한 번에, 단 한번에 내려야 했다. 그러나 제자가 되는 것은 현재 동사와 일반적인 명령과 계속되면서 반복되는 시제가 사용이 된다.

### 제자가 되는 순서

제자가 되려는 사람의 순서는 먼저, 한 번에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 그 후에야 계속해서 제자가 되도록 자기를 따르도록 했다(누가 9:23).

Ἔλεγεν(IdIpA3) δὲ πρὸς πάντας· εἴ τις θέλει ὀπίσω μου ἔρχεσθαι,

ἀρνησάσθω(ImAoM3) ἑαυτὸν καὶ ἀράτω(ImAoA3) τὸν σταυρὸν αὐτοῦ καθ' ἡμέραν καὶ

ἀκολουθεῖτω(ImPrA3) μοι. 누가 9:23.

그후 그는 모든 사람들에게 말했다: 만일 누구가 나의(μ) 뒤를(ὀ) 따라오기를(ἔ)

원한다면, 그는 반드시 자신을 억제해야(ἀ)한다, 그리고 날마다 자신의 십자가를 취해야

(ἀρά)한다, 그리고 나를 따르라!

23절에서 καθ' ἡμέραν 카뜨 헤메란 “날마다”라는 부사는 반복되는 기간을 표현하기

때문에 부정과거 동사가 사용된 ἀράτω(ImAoA3)와 함께 사용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

이유는 단 한 번에 행동이 되어야 하는 부정과거 명령형을 지속적으로 만들기  
때문이다. 그래도 이러한 문법적인 해석이 가능한 것은 Bezae, Ephraemi, Old Latin,

Syriac versions들에는 없어서 후원을 받기 때문이다.

ἐγὼ δὲ λέγω ὑμῖν μὴ ἀντιστῆναι(InAoA) τῷ πονηρῷ· ἀλλ' ὅστις σε ῥαπίζει εἰς τὴν

δεξιὰν σιαγόνα [σου], στρέψον(ImAoA2) αὐτῷ καὶ τὴν ἄλλην·

그러나 바로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다, 악한 자에게 저항하지 마라! 그러나 누구도 너의

오른쪽(δε) 뺨(σι)에다가 너를 때린다, 그에게로 또한 다른 쪽도 돌려라! (마태 5:39)

자기를 부인하는 바에 대해서는 부정과거를 사용했다. 오른쪽 뺨을 때리는 자에게

다른 쪽도 돌려주라는 동작도 부정과거를 사용했다.

그리스도를 따르려는 자의 자세를 너무나 잘 설명해 준다.

한 순간에 자기를 부인한다는 뜻은, 한 순간에 다른 뺨을 돌려 줄 수 있는 자세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는 자세다.

또 하나의 같은 예문을 찾아보자.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를 걸어가시다가 Πέτρος 페트로쓰라고 불리는 Σίμων 씨몬과 그의 형제인 Ἀνδρέας 안드레아쓰(안드레) 어부들을 바라 보시면서,

δεῦτε ὀπίσω μου, καὶ ποιήσω ὑμᾶς ἀλιεῖς ἀνθρώπων. (Mat 4:19 BGT)

듀테 오피쏘 무, 카이 포이에이쏘 휘마쓰 할리에이쓰 안뜨로폰.

와서 나를 따르라, 그리고 나는 너희들을 사람들의 어부들로 만들겠다 (마태4:19).

그런데 20절에서 즉시로 어부들의 반응이 부정과거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οἱ δὲ εὐθέως ἀφέντες(PaAoANm) τὰ δίκτυα ἠκολούθησαν(IdAoA3) αὐτῷ.

즉시로, 그들은 그물들을 남겨둔 채로, 그들을 그분을 따랐다(마태4:20).

Πέτρος 페트로쓰와 Ἀνδρέας 안드레아쓰(안드레)는 지체 없이, 주저 없이,

그물들은 버려두고서 순간적인 결정을 내리고서 그리스도를 따랐습니다.

바로 이것이 제자들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세를 보여주는 예문이다.

그리스어 문법이 아니고서야 어디서 이런 교훈과 감화와 선명한 이해를 얻겠는가?

바로 이런 점들은, 초대 교인들이 그리스어 성경을 읽으면서 느꼈던 마음이라고 본다.

2,000여년이 지난 후에 로스엔젤레스에 사는 크리스찬들도 그리스어 문법을 통해서 초대교인들의 마음과 신앙심과 저들의 세미한 신행(신앙해 기초한 행동)들을 발굴하고

동감하면서 같은 자세로 살아가야 한다.

그리스어 문법의 안목으로 우리는 초대교회로 돌아가, 보고 동감하는 것이다.

## 벼락치는 기도!

마태 6:6에, 부정과거로 표현한 아무도 모르는 짧은 기도에 위력이 있다!

σὺ δὲ ὅταν προσεύχῃ(SuPrM2) , εἰσελθε(ImAoA2) εἰς τὸ ταμεῖόν σου καὶ

κλείσας(PaAoNA<sub>m</sub>) τὴν θύραν σου πρόσευξαι(ImAoM2) τῷ πατρὶ σου τῷ ἐν τῷ

κρυπτῷ· καὶ ὁ πατήρ σου ὁ βλέπων(PaPrAN<sub>m</sub>) ἐν τῷ κρυπτῷ ἀποδώσει(IdFuA3) σοι.

그러나 너는, 기도할(π) 때마다, 너의 창고로 들어가라, 그리고 너의 문을 잠그고서

(κλ), 숨겨진-곳에(κρ) 있는 너의 아버지에게 기도하라(πρ). 그리고 숨겨진-곳에서

보시는 너의 아버지가 너에게 보상하실-것이다(ἀπ).

기도하라는 동사 πρόσευξαι(ImAoM2)에는 부정과거 명령형이 사용되었다.

부정과거에는 기한, 기간, 반복의 뜻은 없다. 따라서 짧은 한 번의 한 순간의 기도다. 문은 닫혔다. 아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숨겨진-곳에서 보시는 아버지께서 너에게 보상을 주실 것이다.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께 청원할 때에는 거의 언제나 부정과거가 사용되었다.

τὸν ἄρτον ἡμῶν τὸν ἐπιούσιον δός(ImAoA2) ἡμῖν σήμερον·

우리의 그 빵을, 그 분배(ἐ)를 오늘(σ) 우리에게 주십시오. 마태 6:11.

그러나 누가는 이 기도문을 ‘날마다’를 첨가하면서 현재시제 동사를 사용했다.

τὸν ἄρτον ἡμῶν τὸν ἐπιούσιον δίδου(ImPrA2) ἡμῖν τὸ καθ’ ἡμέραν· (누가 11:3)



우리의 그 빵을, 그 분배(ἔ)를 날마다 우리들에게 주십시오.

이에쭈쓰께서 제자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에 사용한 동사는 부정과거다.

Πάτερ, ἁγιασθήτω(ImAoP3) τὸ ὄνομά σου· ἐλθέτω(ImAoA3) ἡ βασιλεία σου·

아버지시여, 당신의 이름이 거룩해집니다, 당신의 왕국은 옵니다'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치셨다. 기도를 올리는 사람으로서 자신이 확정한 선언문을 신 앞에 먼저 올립니다.

나는 당신의 이름이 적어도 나에게서 거룩해지도록 행하겠습니다. 당신의 왕국이 적어도 나에게 임하도록 살아가겠다는 최종적인 선언문을 신이신 아버지 앞에 올리는 것으로 기도문이 시작한다.

날마다, 순간마다, 기도마다. 내가 아버지 하느님 이름이 거룩해지도록 살아야 한다. 날마다, 달마다, 해마다, 기도마다, 내가 아버지 하느님 왕국이 지금 설립되도록 살아야 한다. 부정과거는 시간, 기간, 동안, 오랜기간을 허락하지 않기 때문이다. 순간에, 지금에, 기도를 시작하는 이 순간, 지금, 하느님의 이름은 거룩하고, 하느님의 왕국은 나에게로부터 이미 임한 것이다. 이것이 기도하는 자의 바른 자세다.

Μὴ νομίσητε(SuAoA2) ὅτι ἤλθον(IdAoA1) καταλῦσαι(InAoA) τὸν νόμον ἢ τοὺς

προφήτας· οὐκ ἤλθον καταλῦσαι ἀλλὰ πληρῶσαι(InAoA).

내가 그 율법과 그 예언들을 파괴하려고 왔다고, 너희들은 한-순간이라도-생각지 말라!  
나는 파괴하려고 오지 않았다, 그러나 성취하려고! (마태 5:17)

Ὅταν οὖν ποιῆς(SuPrA2) ἐλεημοσύνην, μὴ σαλπίσης(SuAoA2) ἔμπροσθέν σου, ὥσπερ

οἱ ὑποκριταὶ ποιοῦσιν ἐν ταῖς συναγωγαῖς καὶ ἐν ταῖς ρύμαις, ὅπως δοξασθῶσιν(SuAoP

3) ὑπὸ τῶν ἀνθρώπων· ἀμὴν λέγω ὑμῖν, ἀπέχουσιν(IdPrA3) τὸν μισθὸν αὐτῶν.

너는 자선을 행할 때마다, 위선자들이(ὑπ) 행하는 것처럼, 그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받

게 되도록, 성전 안에서도, 길거리들(ρ)에서도, 너는 네 앞에서 한-순간도-트럼펫을-불

지(σα) 마라, 내가 진심으로 너희들에게 말한다: 그들은 그들의 보상을 받고 있다.

Μὴ δῶτε(SuAoA2) τὸ ἅγιον τοῖς κυσὶν μηδὲ βάλητε(SuAoA2) τοὺς μαργαρίτας ὑμῶν

ἔμπροσθεν τῶν χοίρων, μήποτε καταπατήσουσιν αὐτοὺς ἐν τοῖς ποσὶν αὐτῶν καὶ στραφέ

ντες(PaAoPNm) ῥήξουσιν(SuAoA3) ὑμᾶς.

그들(돼지)의 발들 사이에서 그들을 짓밟(κα)고(A), 그들(개)이 돌아서서 너희들을 찢

지 않도록(B), 너는 거룩함을 개들에게(κυ) 한-순간이라도-주지말고(B), 그 돼지들

(χο) 앞에 너희들의 진주들을(μα) 한-순간이라도-던지지 말라!(A) (마태7:6)

이 구절은 A와 A가 B와 B가 쌍을 이루는 교차대구법(Chiasmus)으로  
시각적으로 짜임새를 갖춘 문형으로 그 뜻을 잘 강조한다.

